

예비결정 인용 vs 막판 뒤집기… 배터리전쟁 상흔 깊을 듯

ITC 영업비밀 침해 최종판결 'D-7'

업계선 LG화학 우위의견 지배적 예비결정이 뒤집힌 사례 드물어 배당금 입장차 여전… 협상 난항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배터리 업계는 ITC의 판결 여부와 관계 없이 커다란 격랑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멜리웨어주 지방법원에 낸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 결과가 오는 26일 나온다. 지난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해당 소송과 관련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SK이노베이션이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당사의 주장이 충

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3월 이 같은 예비 결정에 이의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4월 LG화학은 2017년부터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SK이노베이션에 다량 유출됐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화학은 당시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의 전지 사업 미국법인 소재지인 멜리웨어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

심 인력을 빼갔고, 이들이 아직 전 개인 400여~1090여 건의 핵심 기술 관련 문서를 내려받았다는 게 LG화학의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LG화학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제무역위원회가 예비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서는 그간 예비결정이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ITC의 최종판결은 앞선 예비결정을 그대로 인용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결정을 확정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최종 판결의 결과가 SK이노베이션에 유리한 방향으로 다시 뒤집힐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근 LG화학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 또한 최종 판결 이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LG화학은 자사 배터리가 탑재된 현

대자동차 코나를 비롯해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쉐보레 볼트 전기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코나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고전압 배터리의 배터리 셀 제조 불량’을 유력한 원인으로 보고 있고 볼트EV(전기차)는 아직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어, 공의 여부 관점에서 SK이노베이션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에서 배터리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당장 미국 완성차 업체인 포드와 폭스바겐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탑재했던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대체할 업체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양사가 최종 판결 이전 상호 합의를 통해 협상을 이뤄내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양사 간 배상금 관련 논의가 시작되긴 했으나, 그 규모를 두고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하는 배상금 수준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다소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한편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에 제기한 배터리 기술 특허침해 소송 관련 청문회는오는 12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열릴 예정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신들의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 특허 1건 등 총 4건을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의 이의제기가 안 받아들여질 경우, 합의를 안 하면 법상 미국 내 배터리 수입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최종 판결 결과에 대해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두산인프라코어, 80톤급 굴착기 국내판매

굴착기 라인업 중 가장 큰 모델
첨단 IoT 기술로 유지보수 지원

두산인프라코어는 80톤급 굴착기 DX800LC의 국내 판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DX800LC는 두산인프라코어의 굴착기 라인업 가운데 가장 큰 모델이다.

DX800LC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두산인프라코어 플래그십 모델이다. 한국 공학한림원이 발표한 ‘2019년 산업기술 성과 15선’에 선정되어 한국 산업계를 대표하는 우수 기술 제품에 꼽히기도 했다. DX800LC는 두산인프라코어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 중인 5톤급 굴착기에 비해 13배 이상 큰 장비다. 토사 를 담는 베큷 용량은 4.64m³로 0.175m³ 인 DX55-5K보다 27배 가까이 크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독자개발한 전자식 통합 유압 시스템 ‘스마트 파워 컨트롤’을 적용해 작업 성능과 연비가 뛰어나다. 각 작동부위별로 필요에 따라 최



두산인프라코어 DX800LC.

적의 유압을 배분할 수 있으며, 작업 대기 상태에서 불필요한 유압 작동을 최소화해 높은 생산성을 갖췄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진 후처리 기술들을 적용해 친환경적이다.

내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도 플래그십에 걸맞은 기술들을 대거 적용했다. 장비에 가해지는 작업 충격을 완화해주는 인텔리전트 블 브 기능, 장비 주변 360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AVM 등을 장

착해 안전성을 극대화했다.

건설장비의 위치 정보와 가동 현황, 주요부품 상태 등을 원격으로 모니터링 하는 ‘두산커넥트’ 솔루션을 기본 서비스로 제공해, 첨단 IoT 기술로 장비의 유지보수를 적극 지원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 한국형 모델 출시와 함께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도 각 지역별 맞춤 모델로 선보일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LGU+, 미디어 영어교육 사업 확대

청담러닝과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LG유플러스는 프리미엄 교육 서비스 기업인 청담러닝과 함께 전방위적인 미디어 영어교육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 사의 자원을 활용한 미디어 영어교육 사업 활성화 ▲신규 비대면 교육서비스 추진 ▲공동 마케팅 및 영업체널 제휴가 골자다.

LG유플러스는 청담러닝의 콘텐츠를 비롯해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흠크링의 기반을 마련할



LG유플러스 류창수 흠크링그룹장(오른쪽)과 청담러닝 이동훈 대표가 미디어 영어교육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예정이다. 해당 콘텐츠는 U+아이들나라를 통해 제공한다.

/김나인 기자

현대車 미래 자동차 학교 확대 운영

현대자동차가 미래 자동차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 자동차 학교’ 대상을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확대 실시한다.

현대차는 올해 20개 초등학교에서 미래 자동차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인 ‘미래 자동차 학교’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차는 내년에 미래 자동차 학교 참여 초등학교를 20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대차는 2016년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학교 300곳에서 미래 자동차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기기변경부터 원스톱 서비스 제공

SK텔레콤은 5세대(5G) 시대를 맞아 휴대폰 분실 고객을 대상으로 전문 맞춤 상담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T분실 케어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SKT에 따르면 지난해 고객센터에 접수된 휴대폰 분실 상담은 약 40만건으로 이 중 휴대폰을 되찾지 못한 고객 비중은 약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T분실케어센터’는 휴대폰을 분실한 고객에게 필수적인 휴대폰 찾기 안내 및 임대폰 대여, 기기변경까지 전문 상담원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실 고객 전담 고객센터다. 고객이 SKT 고객센터로 휴대폰 분실 신고를 접수하



모델이 ‘T분실케어센터’를 소개하고 있다.

/SK텔레콤

면, 하루 뒤 ‘T분실케어센터’ 전문 상담원이 고객에게 직접 연락해 필요한 조치를 안내하고 고객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업무를 제공한다.

빠른 상담을 원하면 직접 ‘T분실케어센터’ 전용 번호로 전화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나인 기자